

1. 통상현안정보

■ 러시아의 WTO가입을 위한 노력

- 러시아의 WTO가입을 지지하는 협정이 지난 5월 EU와 체결됨에 따라 WTO로 향하는 러시아의 행보에 박차가 가해졌음. 그간 많은 의견 차이로 인해 난항을 거듭했던 가운데 체결된 이번 EU와의 협정은 EU가 WTO 투표권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대외 무역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러시아의 언론은 유럽 연합의 무역통상부 대표 파스칼 라미가 ‘러시아의 WTO가입은 거의 2/3 가량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을 때 대대적인 보도를 통한 낙관론을 표명하였으며, 러시아의 유력지 이즈베스찌야는 이번 EU와의 협정을 통해 러시아 기업이 동유럽 시장 및 기존에 진출하지 못했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또한 이번 EU와의 협상 체결을 통해 러시아는 협상 과정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었던 독점 가스 수출 기업 '가즈프롬' 유지 문제를 러시아 의도대로 관철시켰음. 그러나 에너지 국내가격과 수출가격 차이 시정 요구는 받아들여 점진적인 국내 에너지 가격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즉, 러시아는 국내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현재 27~28달러에서 2006년 37~42달러, 2010년 47~50달러로 점진적인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음.
- EU와의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는 향후 2년~10년 동안 수입 관세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임.
- 협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EU산 공업제품의 관세를 현재 평균 10%에서 향후 평균 7.6%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농산물의 경우 13% 이하의 관세율을 책정하기로 했음.
- 항공기 관세의 경우 EU는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협정을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현재의 항공기 수입 관세를 향후 7년간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상기 기간 이후 현재 관세율보다 20% 가량 하향 조정된 12~14% 수준의 관세율을 제시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세율은 러시아 항공기 제조 산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더불어 러시아는 향후 항공 네비게이션 및 공항 정비 시설과 관련한 점진적인 관세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음.
- 자동차 수입 관세의 경우 현재의 25~35%에서 2010년까지 약 20% 대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이는 러시아 자동차 업계가 수입 자동차 관세율을 50% 대로 상향 조정하고자 했던 시도와 모순되는 것임.
- 한편 러시아는 섬유, 의류, 신발류, 가구 및 장남감 등의 수입에 고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중이며, 반면 상기 품목의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
- 농업부분에 대한 관세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육류, 일회용품, 설탕, 곡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현재의 관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아울러 미 포춘지는 EU가 러시아의 육류 쿼터제 운영을 허용하여 2010년까지 러시아의 육류 쿼터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

- 외국계 항공사에 대한 시베리아 영공 운행 요금은 2013년까지 점진적인 인하를 실시할 계획임.
- 금융 시장 개방의 경우 러시아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며 외국 은행의 직영 설립을 통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차단하였음. 그러나 금융인들은 이러한 제한이 외국 자본의 침투를 막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며 외국계 금융 기관의 지분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 금융 시장에서 외국계 은행은 12%, 보험은 2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음.
- 전자통신부분 또한 러시아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2007년까지는 현재의 국영 통신회사 로스텔레콤을 운영할 것이며 2007년 이후에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 및 국제 자유 경쟁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더불어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협정을 맺은 이상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와의 협정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국가들의 입장은 EU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국내 에너지 가격 문제에 덜 민감한 편이며, 중국은 러시아 시장에 중국 인력 공급에 관련한 문제 및 섬유와 신발, 그리고 가구에 대한 낮은 수입 관세에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보임. 일본의 주 관심사는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가 될 것이며, 호주의 경우 아직 예측하기에는 이르지만 일부 품목의 수입 관세 인하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측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의 WTO가입을 위한 사전 협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정확한 러시아의 WTO가입 시기를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러시아의 부총리 알렉산드르 주코프는 러시아가 2005년에 WTO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음.

(문의처 : 모스크바 무역관 이금하 과장, kumhalee@kotra.or.kr)